

생시체중을 늘리기 위한 5가지 중점 포인트

사 영

정 일 희 컨설턴트
(정일컨설팅)

우리 나라의 양돈 산업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변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파동 이후 대일 돈육 수출의 중단은 국내시장의 돈가 하락으로 이어져 양돈 산업의 생산기반마저도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육감에 의한 사양관리 및 경영방법으로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사업의 지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양돈농가 여러분 !

지금이라도 당장 농장경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재 진단하여 생존전략을 수립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사소하고 소홀하기 쉬운 기본 관리 사항이 결국에는 아주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사양관리 중에서도 본인은 생시체중의 향상 방안에 대하여 현재 집필되어 있는 여러 자료 중에서 중점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산차

산차별 생시체중을 보면 초산돈이 경산돈에 비하여 적다. 초산인 경우 적은 이유는 모돈이 아직 미성숙 상태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산차별로 1.0kg이하의 자돈 출현율을 보면 초산이 약 15%, 2-5산이 8-12%, 8산 이상의 노산인 경우는 24%까지 나타나 산차가 노산일수록 생시체중 1.0kg이하의 자돈이 증가한다. 적절한 산차의 구성은 농장성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산차의 구성비율은 1-2산차 모돈이:40%, 3-4산:30%, 5-6산:20%, 7산 이상:10%정도가 적당하다(평균3.4산).

2. 후보돈의 첫 교배일령

일반적으로 양돈농가는 체중이 큰 후보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후보돈은 도입 후 농가에서 최소 45~60일간 관리 후 교배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적으로 증돈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220일~240일 사이에 교배를 권장하는데 이때의 체중은 최소한 125kg 이상이 되어야 한다. 체중이 작으면 생시체중도 작아진다. 첫 교배시 생시체중에 미치는 요인은 일령이 28%, 체중이 72% 영향을 준다.

3. 임신 후반의 영양관리

태아의 발육은 수태후 90일까지는 500g, 그 이후 24일만에 1.4kg에 도달한다. 따라서 90일 이후에 자돈의 체중이 60%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분만 전 약 3주간은 사료급여량을 1-2kg정도 늘려 주어야 한다(2.8~4.5kg). 특히 겨울철에는 단열이 미흡한 돈사에서 관리되는 모돈인 경우에는 보온이 잘된 돈사보다 두당 200-400g정도 사료급여량을 증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과비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개체별 체형에 따라 주간 1회씩 사료량을 조절해야 한다.

4. 이유시기와 모돈의 체평점

생후 14일 이내에 이유하는 경우는 자궁내막이 기능을 회복하기 전에 다음 교배가 이루어져 산자수나 생시체중이 감소한다. 분만시 체평점은 3.5, 이유시 2.5이상을 유지하고, 교배후 90일에 3.0을 목표로 관리해야 된다.

5. 교배후 모돈관리

교배후 열악한 환경이나 사양관리는 수정란의 착사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한, 냉, 무더위, 사료의 과부족, 음수부족, 바닥의 상태등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



다. 상기 모든 요인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농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스톨사 바닥의 상태이다. 물이나 오줌이 고인다가거나 경사가 심하면 영향을 미친다.

상기에서 기술한 요인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5가지 중점 사항만 잘 지켜도 생시체중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끝으로 자돈의 생시체중이 적으면 생존율도 떨어져 이유두수의 감소로 직결된다. 생시체중과 출하일령의 관계도 중요한데 생시체중이 0.9kg인 경우 출하일령은 205일이 걸리고, 1.3kg은 183일, 1.5kg은 178일이 걸려 0.9kg과 1.5kg의 차이는 출하일령이 27일 단축된다. 즉 생시체중이 클수록 출하일령이 빨라진다. 출하일령도 생시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생시체중이 커지면 사료비가 절감되어 농장의 수익이 상향된다. **양돈**